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44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년 전부터 많은 하키인 부탁에 출마" **최철원 대표 사퇴 거부**



체육시민연대 긴급 논평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거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입장"

안민석 의원 "맏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 개탄...최철원 금지법 발의할 것"

대한체육회장선거...최대 쟁점은?

현직 프리미엄 이기흥 VS 반이기흥 구도?

"체육계 개혁은 체육인의 손으로..."

한국 체육의 새 100년 위한 리더십 필요

스포츠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움직임

신일본 스포츠 연맹 "화내지 않는 지도법"

"체육계 문제, 인문철학으로 해결하자"

"어린이를 위한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 출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체육시민연대 긴급 논평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거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입장

‘우리 회장님은 한 대에 100만원 댓값 폭행 당사자야. 구속돼서 사람들이 엄청 욕했던 사람인데 재벌이라 관찮아, 돈 많아 관찮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댓값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당사자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버젓이 당선되었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는 재벌이라면 체육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수치스런 사례를 크게 남겼습니다. 아이스하키협회는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도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협회의 정관은 허울뿐인 종잇장에 불과했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정관을 어겼으니 관리단체로 지정되어도 할 말 없는 아이스하키협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26조 12항에 의거 인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세금 4천억을 받아쓰고도 이조차도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윤리적 스포츠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국민들과 체육계에 나쁜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 볼 면목 없는 나라는 아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0. 12. 17

체육시민연대



JTBC 뉴스
이선화 기자 2020.12.18

결국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 '최철원 금지법' 나오나

[앵커]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던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어제(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폭행 전과에도 결국 체육단체 회장직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선 '최철원 금지법'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철원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82표 중 62표를 얻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아이스링크를 더 만들고, 실업팀도 창단할 거란 기대가 쏠렸습니다. 그러자 시민 단체에선 긴급 논평을 냈습니다.

[허정훈/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있는 재벌이라면 체육 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부끄러운 사례를 크게 남긴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최철원 금지법'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과가 있으면 체육 단체 회장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체육 단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체육회는 아직까지 "인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부터 이렇게 전과자니까. 산하 협회 회장들이 전과자인 것들이 용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 당선인은 다음달 말까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2020.12.18

안민석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당선 개탄... '최철원 금지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이른바 '맷값 폭행' 가해자 최철원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자,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원 대표는 전날 열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에서 유효투표 82표 중 62표를 얻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최철원 대표는 2010년 SK본사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한 화물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소위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네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철원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기업인의 폭행을 다룬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렇듯 최철원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당선되자, 안민석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최철원 금지법' 발의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맷값 폭행'의 가해자 최철원씨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압도적 당선은 충격적이다. 부끄럽기도 하다"며 "최철원의 출마를 방치한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스포츠계의 폭력 근절을 외쳐온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최철원의 회장 인준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최철원의 회장 인준을 불허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인권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앞으로 4년간 한국체육을 이끌 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 동안 실시된다"며 "사회적 본보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최철원씨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회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에 앞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출마하지 말아야 하고, 체육인들이 뽑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당하다"며 "최씨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출마와 당선이 심각히 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안민석 의원은 "스포츠 폭력 성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체육 단체장은 도덕성이 우선"이라며 "국민들과 체육인들이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그러면서 "성범죄 스포츠 폭력 반사회적 범죄 행위자들은 체육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대한체육회나 정부가 나서 인준을 거부해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체육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은?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제41대)을 세우는 선거(2021.1.18)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이번 대한체육회장은 2021년 이후 4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과 체육인들의 명운을 책임진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체육회의 2대 수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대의원,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로 구성된다. 오는 28 29일 이틀에 걸쳐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에 맞서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이 체육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지낸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해묵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분리 이슈..이번에도 최대 쟁점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통합체육회의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선언으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회장은 진천선수촌 이전, 평창올림픽 참가, 체육인 교육센터 개소, 최초의 민선 시도회장 선출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는 영광도 안았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체육인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 사건,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을 들었다. 제도적으로 폭력 사건을 뿌리 뽑지 못해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고, 국회에 불려가 질타를 들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를 놓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대립을 이루고 있다. KOC 분리 여부는 체육계의 해묵은 이슈지만 스포츠 인권과 함께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체육회가 KOC를 포괄하면서 예산과 조직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는 분리해 KOC는 올림픽 선수단 파견과 국제대회에 주력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등을 강화해 승리지상주의 문화를 깨야 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장이다.

다음 장 계속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이기흥 회장을 중심으로 올림픽 헌장,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율성 침해 등을 근거로 반발했다. 이기흥 회장 측은 “지금은 KOC 분리가 아닌 대통합이 필요한 때다.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 투자와 체육 전문가들의 일관성 있는 체육 정책을 세우기 위해 통합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기흥 체제에 반대하는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은 현 체제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후보다. 장 총장은 14,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총장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대한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를 상대로 대한체육회가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 총장은 이기흥 회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분리가 아닌 독립이라고 주장한 장 총장은 “대한체육회가 KOC 분야를 체육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의 분리 반대는 전국 체육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림픽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독립시키고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은 대한체육회가 전담해 집중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장 명예총장은 정부가 이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이 징계를 받은 뒤 체육회와 정부는 반목 현상을 이어가고 있고 소통이 단절됐다”면서 “(이 회장이)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건 자유지만 국민에겐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각을 세웠다.

재선 의지를 밝힌 이기흥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야권 단일화의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단일화 동력은 약하다는 분석이다.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KOC 분리에 대해 강신욱 단국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등은 이기흥 회장이나 장영달 명예총장 만큼의 뚜렷한 색깔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18일 출마를 선언한 문대성 집행위원의 존재도 단일화의 변수다.

단일화가 이뤄져 이기흥 대 반이기흥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지 당장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이기흥 회장에 우호적인 표가 많다는 체육계 안팎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한체육회장 후보 강신욱 교수 "체육계 개혁은 체육인의 손으로"

내년 1월 18일 치러지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신욱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 체육회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다. 강신욱 교수는 "오랜 시간 체육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직화된 분위기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며 "핵심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을 흐트러뜨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한 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개혁은 반대했다. 체육계 개혁은 체육인 스스로, 내부동력을 끌어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개혁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급진은 반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체육계 개혁을 강조했다. 또 "정치인들이 체육계에 뛰어드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가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주도는 안된다. 민선체육회가 시작됐는데 대한체육회도 진정한 민선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경계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11일 강신욱 교수를 만나 출마이유와 체육계 문제점 진단, 개혁방안 등을 들었다. 다음은 강신욱 교수와의 일문일답.

- 현재 대한체육회 구체적인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수정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나 진정성이 의심된다. 체육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3무(무능력, 무소신, 무책임)가 팽배해 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냈는가 반문해 봐야 한다.

- 체육계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여러가지 권고사항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당장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수업권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학생 선수의 주중대회 금지와 주말대회 전면화를 2021년까지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혁신위가 가려는 일정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혁신위 노력과 열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없다. 방향은 공감한다.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주중대회 금지 등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체육계 현장과 좀 더 대화하고 고민하고 결정했어야 한다. 내용을 보면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종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제 집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 듣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칼질하는 듯한 혁신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엘리트 스포츠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너무 나간 것이다.

다음 장 계속

-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혁신위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혁신요구가 계속 돼 왔다는 점이다. 이는 체육계,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혁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외부의 요구나, 외부로부터의 혁신은 목표나 어젠다가 옳다고 해도 구성원의 화합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 갈등을 일으키고 원하는 만큼 안된다.

- 올해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이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문제다. 정부 주도의 분리와 체육인들의 통합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분리와 통합 논쟁은 오랜 체육계 화두다. 정답이 어디있나. 세계 각국 태도가 다 다르다. 외국 사례를 따를 건 아니다. 분리 문제는 많은 어젠다를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다.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다. 분리되면 엘리트스포츠가 위축되고, 통합돼 있으면 갈등 없다는 논리는 교묘하게 본질을 왜곡시키는 논리다.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흡수통합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 일을 잘 했으면 그 단체가 생겨나지 않았다. 체육회가 KOC 역할에 집중해 있으니, 국민 전반적인 체육활동에 관심 덜했다. 엘리트체육과 국민생활체육과 관련해 좀 더 균형있게 갔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긴다.

-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생각은 분리 쪽에 가깝다. 이미 제 논문 등에서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개인 생각이다. 그것을 공론화하고 결론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저도 밖에 사람이었고 내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교수 강신욱은 분리를 원하지만, 당선이 된다면 체육회장 강신욱은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기다려줘야 한다.

- 체육회는 바람 잘 날 없었을 만큼 사건 사고들이 많았다. 각종 폭력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정부는 8월 스포츠 인권센터를 설립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폭력 근절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군대에서도 폭력이 없어졌다. 가정에서도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체벌 등 일반화돼 있던 것들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 여전히 체육계에는 남아있다. 체육계의 폐쇄된 구조, 수직적 인관 관계 등 여러가지 요인을 얘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해결법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자. 선수 자신들이 지도자, 학부형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것은 이미 안된다. 예방을 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의 핵심은 1년 2회 정도는 대한체육회 등록 모든 선수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성)폭력 경험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반드시 지난 6개월간 실태를 알려주고 반드시 조사, 기관장한테 통보하고 문제가 생기면 후속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체육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체육인 일자리 창출 문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려운 문제다. 일자리 자체가 선수 지도들을 다 받아들일 만큼 많지 않다. 없는 자리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배드민턴쪽은 선수, 학교 생활 엘리트 선수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호인이 많으니 강사 언제든 필요하다. 엘리트쪽이 아니라 생활체육쪽에서 더 필요로 한다. 선수 하던 사람들이 우수하니, 더 많은 수입도 생긴다. 축구도 그런 점에서 다른 종목보다 인프라가 잘돼 있다. 스포츠판(스포츠 생태계)이 새 일자리 창출 판이 열려야 한다. 그 판이 열리려면 일반 국민들이 즐길 판이 먼저 열려야 한다.

다음 장 계속

-엘리트 스포츠가 최근 침체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선 강신욱 교수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면 엘리트 스포츠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과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엘리트 스포츠는 선수와 지도자, 그들을 위해서 누가 더 고민하고 공헌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다. 혁신위 안에 대한 포괄적인 찬성에 대해 반엘리트라 한다면 무지막지한 편가르기에 마타도어다. 엘리트 스포츠 위축에 대해 말한 적 없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 옆에서 떠난 적이 없다. 대학스포츠 협의회 집행위원장 7년을 하면서 예산 10억을 130억으로 늘려놓고 왔다. 그 중 3분의 2는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쓰였다. 해방이후 처음 생긴 지원 사업이다. 치열하게 논쟁하며 그들(정부)를 설득했다. 대학스포츠는 체육계 허리를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대학스포츠가 점점 없어지고 있을 때(엘리트 스포츠 위축을 주장한) 그들은 뭐했는지 묻고 싶다.

-체육회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체육인이 체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의미인가.

체육인은 운동을 직접 하거나, 선수를 지도하거나, 연구한 사람들을 체육인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경기인, 정치인일수도 있다. 이들이 새로운 100년의 주역이 돼 체육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 현장중심적인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 체육인은 조금은 영리하지 못해도, 영특하지 못해도 정정당당하고 명예를 중시한다. 운동은 유한경쟁이다. 룰이 있고 따라야 경기도 되고, 즐길 수 있다. 거기에 내재화된 사람들인 체육인은 한계를 안 넘어간다.

-필드하키 선수이자 코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서울 대학에서 하키한 게 운동이나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했다. 학교 수업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국가대표급 엘리트들은 '운동했다 말하지 말라'지만 그분들 만큼 자부심이 있다. 전농중 체육교사 겸 감독으로 처음 지도자 생활을 했다. 당시는 운동이 학업지속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무섭게 운동시켰는데 그게 그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6개월 운동 후 춘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후엔 국대 출신 코치를 쓰기도 했지만 그냥 맡겨놓지 않았다. 훈련계획을 같이 짜고 생활도 같이 했다. 용산고등학교에서도 똑같았다.

-지방체육회 재정문제..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관계 설정은?

대한체육회가 돈 많이 벌어서 지원하면 좋지만 불가능하다. 시군구 예산이 2조인데 체육회 예산이 4000억원이다. 지방체육회와 대한체육회는 사실 다른 단체다. 상하관계 아니다. 체육예산이 1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으로 0.33%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1%는 되어야 한다. 체육이 그 정도 역할은 하는 것 아닌가. 토토수익금을 더 늘려 지방체육회를 지원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토토수익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곳은 없는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은 찾아야 한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체육인으로서 문제 해결해야 한다. 체육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관련 정부 국민 관심 높다. 개최 관련 찬반 여지 있지만 염원이 좀 더 크다고 본다. 지금 딱 막혀 있는 것이 잘 개선될 것으로 본다.

white@sportsseoul.com



조선일보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장 2020.12.17

한국 체육의 새 100년 위한 리더십 필요

올해는 우리나라 체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체육인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선수 인권 유린과 가혹 행위, 성폭행, 경기 단체 비리 등으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졌다. 이런 폐해는 체육인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선수들 사기도 떨어졌다. 하지만 각 체육단체는 각종 사고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부실한 조사, 미흡한 사후 조치 등으로 무능을 드러냈다. 체육계의 고질적 폐해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미시간주립대 체조 선수 성폭력범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했고, 미 올림픽위원장과 미시간대 총장이 사퇴한 적이 있다. 4년 전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관장하는 기구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한국 체육의 미래상에 대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내년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체육인 복지권익 향상 욕구가 상승하고 있고 생활 체육 인프라 조성 등 급변하는 체육 환경 속에서 대한체육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체육의 위상에 걸맞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특히 체육인들의 존경을 받는 경기인 출신은 선수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수 보호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선수 폭력·성폭행 등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거로 한국 체육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스포츠에 있어서 화 내지 않는 지도를



신 일본 스포츠연맹
'스포츠 광장' 2020년 11월호 칼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혹은 사회인이나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국가대표팀까지 그곳에서 지도하는 감독이나 코치들의 폭력과 성희롱, 갑질 등 불상사가 종종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오이타 현 초등학교 배구 팀에서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 문제가 됐고, 놀랍게도 이 사실을 학부모들 모두가 은폐했다는 것도 발각되었습니다.

왜 감독이나 코치들은 가르칠 때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것인가. 아이들은 안 맞으면 잘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자배구 전 일본 국가대표 마스코 나오미 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감독 코치가 경기중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혼났으면 마스코 씨에게 통보한다고. 경기후 해당 감독 코치들이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 화내지 않는 지도법이 보급해서 언젠가 이러한 화내지 않는 대회가 필요 없어지는 것 " 이 목표이고, 마스코 씨는 현역 시절에 칭찬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배구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대회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야단 맞으면 아이들은 위축해서 본래 가지고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프로 야구 서부 라이온스 감독을 맡은 와타나베 히사노부 씨는 취임 1년 만에 퍼시픽 리그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저서 " 포용력 " 에서 " 화내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은 성장한다 " 고 우승한 시즌을 되돌아 말합니다. 야구는 실수가 용납되는 스포츠이므로 실수를 용서할 지도자가 되겠다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를 동렬에 둘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초중고생 및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 · 코치 등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때리고 차고, 큰 소리로 매도하면서 지도할 방식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신일본 스포츠 연맹 후쿠오카현 연맹 사무국장 칸다 타카시

체육계 문제 인문철학으로 해결하자



송강영 / 동서대 체육학과 교수, 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2019년 1월. 참 낮간지러운 날이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선수가 고교 2학년 때부터 3년 넘게 스승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나라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소식에 '설마'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설처럼 성폭행 사실이 밝혀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와 승리지상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한다.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로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1년 동안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확립과 체육 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등 총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체육계에 비리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지 않은 정부가 없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태권도 선수 아버지가 심판 편파판정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정부, 경찰, 검찰이 연계한 합동수사반 사무소를 개설한 적이 있다. 당시 체육계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감냥도 안 되던 사람이 완장 차고 나대던 시절이 생생하다.

그 이후에도 국가대표 출신의 유도 왕기춘 선수 성폭력 사건 및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 선배, 코치, 감독 그리고 무늬만 체육인인 사람들에게 배운 못된 행동과 태도를 뿌리 뽑기엔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일부 사람 중엔 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으레 요즘 군대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며 혀를 내두른다. 필자가 볼 때 체육계의 문제는 무식이 용감해서도, 또 맷집이 강해서라기보다 금메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결과라고 본다. 일부 체육학자, 언론 및 정치인 중엔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점도 있지만 그 죄질의 모양과 강도를 보면 꼭 성적지상주의가 원인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김훈 작가는 H신문 칼럼에서 '국영수는 용의 자리에 오르는 사다리였다. 용과 사다리만을 가르쳤고, 개천의 발원지나 유역, 수질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체육인도 마찬가지다. 금메달 따는 것만 가르쳤을 뿐 인권을 포함한 '생각의 근육'을 키워준 적이 없다.

체육인과 일반인의 집단 사고의 간격을 좁힐 방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체육인 중에서도 체육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체육지도자의 인식 구조(수준)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순자의 권학 편에 실린 '흙을 쌓아 산을 만들면(적토성산, 積土成山), 비와 바람이 거기서 일어난다(풍우흥언, 風雨興焉)는 글귀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100년 동안 금메달 따는데 필요한 흙을 쌓아 세계 10위, 스포츠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금메달 따는데 필요한 흙을 쌓아 스포츠강국이 된 것처럼 인문철학지식이라는 흙을 쌓아 '생각의 근육'을 길러준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던'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상식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다.

현 정부는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다. 정치구호가 아닌 체육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물론 오랫동안 내재된 집단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문철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경기력 향상 중심 교육과 함께 '생각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개설되길 희망한다. 인문철학교육을 통해 '생각의 힘', '생각의 근육'이 길러진다면 반드시 '깨어있는 체육인'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는가.



어린이를 위한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 출간

스포츠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이 나왔다.

18일 한국방정환재단은 10명의 스포츠인권 전문가와 함께 스포츠인권의 개념과 실현 방안을 담은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부터 스포츠인권을 바로 알고 시작하자는 취지다.

이 책은 △스포츠인권이 왜 중요할까요?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겨요 △폭력을 겪는 선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장애인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 △성평등한 스포츠가 실현되는 세상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스포츠 △운동부 학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어린이를 지도하는 스포츠지도자를 위하여 △스포츠가 주는 평화라는 선물 등 10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저자로는 지난해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에 참여한 이대택 국민대 교수, 정용철 서강대 교수,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 함은주 박사(문화연대), 홍덕기 경상대 교수와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민솔희 나사렛대 교수, 최승표 우리야구협동조합 대표, 김동혁 인권과스포츠 대표, 임한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방정환재단 이상진 사무총장은 “이 책은 모든 어린이의 인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즐거운 스포츠 환경에서 운동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스포츠, 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추운 겨울 날씨로 위축된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각하는 교과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번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생각하는 축구교과서’, ‘생각하는 야구교과서’, ‘생각하는 올림픽 교과서’, ‘꼬불꼬불한 컬링 교과서’에 이은 다섯 번째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 제보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장 선출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사항

-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
- 후보자 비방, 중상,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전화 02-2279-8999 이메일 sports-cm@daum.net

※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